

# 지역 빛낼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

### 전남도 '인재 한마당' 개최 6개 분야 381명 축하의 장 매년 100억 들여 집중 육성

인재 육성을 도정의 핵심 시책으로 삼고 있는 전남도가 6개 분야 381명의 인재를 축하하는 장을 마련했다. <관련기사 20면>

전남도가 2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한 '2021년 전라남도 인재한마당'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일 동신대 총장, 유근기 곡성군수, 으뜸인재, 학부모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으뜸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서는 민선7기 브랜드 시책인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의 3년 성과를 되짚어보고, 해외유학생, 으뜸인재, 예비영재육성, 노벨캠프 등 6개 분야에서 선발한 381명의 인재를 축하했다.

본행사에서는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인재와 그동안의 성과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17명의 으뜸인재가 좌절을 딛고 일어나 각자의 영역에서 미래를 위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작은 공연을 펼쳤다. 행사의 대미는 현재 지역을 이끄는 귀빈들과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함께 전남에 '희망의 빛'을 밝히는 세레머니로 장식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2021 전라남도 인재한마당'이 21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인재는 전남의 희망이라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김성일 도의회 부의장, 최일 동신대 총장, 유근기 곡성군수 등 내외귀빈과 으뜸인재, 학부모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트는 2019년 1503명, 2020년 1501명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총 6187명의 인재를 지원한다.

지원 결과 진도국악고에서는 5년 만에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했으며( 으뜸인재), 아르바이트로 전액 학비를 조달하면서도 교육봉사까지 하던 마음 따뜻한 청년(해외유학생)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바이오데이터공학과에 진학해 유학길에 오르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는 프로젝트가 지역의 백년대계로 자리

잡도록 전국 최초로 '인재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실험기구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했다. 또한 지역 대학이나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선발한 인재에게는 일정 시간 이상의 지역봉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원 종료 후에도 인재DB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 자신만의 뜻을 훌륭하게 피워 자신은 물론 지역

까지 빛내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바이오,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프로젝트를 통해 길러낸 인재가 역량을 맘껏 발휘할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인재가 전남의 희망입니다'라는 기치 아래 3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 매년 100억 원을 들여 미래 지역을 이끌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시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보훈 특별주간 운영 서훈 결정 68년만에 훈장 전달

광주시는 "호국보훈의 달과 제71주년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보훈 특별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4~30일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긴다'라는 주제로 보훈단체 간담회, 국가유공자 위문, 명패 달아주기, 6·25 기념행사 등을 진행한다. 오는 24일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입주한 광주 보훈회관을 찾고 별도 사무실이 있는 광복회, 재향군인회, 백범기념관도 날짜별로 방문한다.

지난해 4월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전쟁 영웅 고 성관식 해병대 소령 유족의 집에 국가 유공자 명패를 달고 다른 참전 유공자도 위문한다. 6·25 기념일에 빛고를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1953년 서훈 결정을 받고도 아직 훈장을 받지 못한 수도 사단 고 김일영 중위 유족에게 종전 68년 만에 무공 훈장을 전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눈썹 문신 등 불법·무신고 영업 광주시, 58개 미용업소 적발

의료인만 해야 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미용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5개 자치구가 최근 한 달여간 특별 단속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위반 행위와 의심되는 58개 업소를 적발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와 전문 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 의료행위 31건 등이었다.

마취 크림, 색소 등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업소가 많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미용 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한 사례도 있었다. 광주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하고, 형사 처벌 대상 업소는 대표자 등을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음식점 입식테이블 5000세트 확대 지원

전남도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음식점에 입식테이블 5000세트를 확대 지원한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특별 지시로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바닥에 앉아 식사하기 불편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예산에 2021년 총사업비를 지난해 7억원보다 13억원을 증액했다.

음식점 500개소를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5000세트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하며 관광객, 노인, 장애인 등 이용이 많고 입식테이블 신규 및 추가 설치를 바라는 업소에 우선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미래차 전장부품산업 본격 시동

## '전장부품 기술 고도화' 선정 2025년까지 총 450억원 투입

광주시가 450억원을 투입해 미래자동차 전장 부품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빅데이터 기반 자동차 전장부품 신뢰성 기술 고도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 자동차산업 성장동력으로 '자동차 전장부품 신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7년 4월부터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포함하는 한편 중앙부처를 상대로 사업의 중요성을 집중 건

의해 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 주관으로 (재)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부식방지학회, 전남대학교 등이 참여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290억원, 지방비 80억원, 민자 80억원 등 총 450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 내에 공동실험실과 장비를 구축한다.

전장부품산업은 차량에 들어가는 전자·전자·정보·편의 장치들로 레이더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차선이탈 방지, 안전, 공조 등 범위가 종류가 다양하고 타 산업 분야에서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시장규모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빅데이터 기반 전장부품 신뢰성 고도화' 사업이 사업신규 부품 개발사용 급증에 따른 고장, 안전 신뢰성 발생 문제 해소, 부품 경쟁력, 신뢰성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부품기업 전장부품 개발, 생산,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 오류, A/S, 문제점 등의 자료를 데이터로 분석·가공해 부품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기술개발, 인증,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장부품 신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게 된다. 시는 또 다수의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상호 부품개발 협력체계를 만들고,

강점을 보이는 가전·광산업·인공지능 관련 지역 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생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이 밖에도 빛그린산단 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단지, 부품인증센터시설과 함께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합작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연계한 미래차 전장부품 산업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육성장은 "미래자동차 전장부품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최우선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지방세 체납자 137명 가상재산 압류

전남도가 지난 5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재산 현황을 파악해 이들 중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전격 압류했다.

이번 체납처분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

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데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확인이 가능토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빚썸,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173명이 10억986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우선 137명 1억4400만원 상당을 전격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000만원을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

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 경품 대전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입구)